

결 정

2018 - 1062 신문윤리강령 위반

- 1.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 2.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주 문

東亞日報 2018년 2월 14일자 C4면 「미세먼지-설날 과식...체내 '해독공장' 肝부터 챙기세요」 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2월 21일자 D5면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막으려면/경동맥 혈관벽 두께 관리하세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東亞日報)=

C4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제약

제30016호 동아일보

미세먼지-설날 과식... 체내 '해독공장' 肝부터 챙기세요

간 건강

술무렵 비롯해 과식, 겨울철 운동 부족,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인들의 간 건강은 취약해지기 쉽다. 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 역시 체내 해독 공장으로 불리는 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간 질환으로 병원 방문 환자수는 작년 할 때에만 약 18만 명이 달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도 2014년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 간 질환이 8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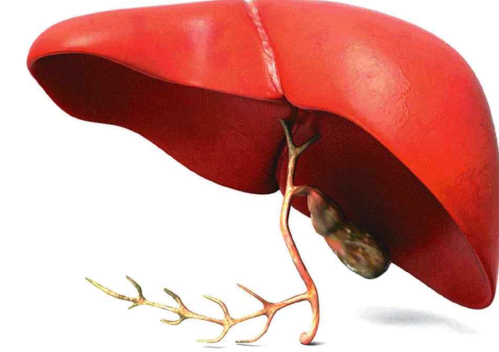
간 기능 활성화 돕는 UDCA
美 FDA 효능·안전성 인정받아

우리 몸 해독 기관인 '간' 건강 챙기자

간은 각종 영양소 흡수를 돕고 단백질과 동맥으로 들어온 독소와 노폐물의 해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알코올을 포함한 각종 음료를 비롯해 생활 속 화학 제품 유해물질은 일부 생장 독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에 침투한 독소 및 노폐물을 70% 이상 해독하고 다양한 물질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인해 '몸속 화학 공장'이라는 별칭까지 붙여졌을 정도. 그렇지만 아니라 간은 중요한 면역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체내에 들어올 경우, 간을 거치는 성분 작용을 통해 약 1% 미만의 세균이나 간을 통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간에 채 영양을 못할 경우 우리 몸에 침투하는 유해물질의 위험한 해독은 불완전하고 신장에서도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 그만큼 평소시 간 컨디션을 체크하고 챙기고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간의 상태가 나빠져도 이를 눈치 채기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간은 우리 몸의 진정한 신진대사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간 기능에 손상이 오도 정형적으로 기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예비 기능의 특성 탓에 간세포가 사멸이 되고도 간 기능이 잘 안 떨어진 채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한 편이다. 특히 한 달 동안이 아니라 장기간 손상되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이 진



한 황색이나 탁색으로 변하거나 입 냄새가 심해지고 피부에 붉은반점이 나타나게 된다. 간 손상 정도가 심해지면 담낭과 상강의 문제가 이어지는데, 실제로 재발의 경우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다. 가끔 간염 유사한 오한과 심부름이 빠르거나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우연의 건강검진에서 황색, 초음파 등을 통해 간 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한편, 장기간 함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간 질환을 소홀히 하는 것은 금물이다. 간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간 세포가 많이 파괴되면 황색 속에 AST, ALT 등 두 가지 효소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간 기능의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고 무조건 간이 정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간이 50%까지 손상되어도 간 수치는 정상일 수 있다. 또한 간경변, 만성 비알콜성 간염 등 만성적 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간 기능 활성화를 돕는 대표적인 성분인 UDCA를 함유한 대표적 간 기능 개선제 '대용제약 우루사'.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 중에서도 UDCA(Ursodeoxycholic acid)우루사(대용제약)가 '환단상'인 간 기능 활성화를 돕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그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UDCA는 체내에 이로운 담즙산의 성분이자 중장파 핵산 성분으로, 미국 FDA에서 간경화 치료제로 승인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DCA는 간 내 축적된 중성지방 제거를 돕는 작용을 도와 독소와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간 세포를 보호하는 등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아니라 간염으로 황색 스테를 유발을 막고 담즙산을 통해 황색 스테를 배설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작용을 통해 간 내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알콜성 작용으로 간 섬유화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간 기능 수치를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밖에 음주로 인한 체내 에탄올 및 그 대사체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부터 간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UDCA는 체내 담즙산의 3분의 1을 차지 순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그 비율이 총 담즙산의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외부로부터 꾸준히 섭취해 체내 UDCA의 비율을 높여주면 면역력 증가와 간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효과 검증된 간 기능 개선제

UDCA를 함유한 대표적 간 기능 개선제 중 하나가 바로 대용제약 우루사다. 특히 우루사는 임상시험을 통해 UDCA의 효능을 실험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14년 5년간 국제임상시험 IACP(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에 '대용 우루사'의 간 기능 개선에 관한 임상 시험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우루사는 8주간 복용한 간 기능 장애 환자 중 80%가 회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 밖에도 아를 환자의 간 효소(ALT-alanine aminotransferase) 수치가 1개월 만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루사는 UDCA 성분 외에도 피로해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 B를 함유하고 있어 만성 간 질환의 간 기능 개선,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정신 문제, 육체 피로 등을 해소하는 데도 유용하다.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특이한 우루사 성분 함유로 간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백진태 기자 jpcar1029@donga.com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막으려면 경동맥 혈관벽 두께 관리하세요

김재범(66·서울 마포구)씨는 얼마 전 자신의 부고 소식을 접한 뒤 충격을 받았다. 불과 일주일 전 함께 밥 먹고 농구를 했던 후배였다.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은 뇌졸중. 최근 강한 한파에 혈관이 수축해 뇌혈관이 타격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빠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평소 술과 담배를 즐겼던 40대는 그해말을 앞두고 경동맥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었다.

건강보양성분강화에 따르면 뇌졸중은 2016년 국내 단일원인 사망률 1위를 기록했다. 뇌졸중은 뇌 주된 혈관이 막히거나 타격 뇌가 손상되는 질병이다. 특히 겨울에 더 위험하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혈관 내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예전엔 50대 이상 환자만 대개 발생했지만, 요즘엔 젊은 층에도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 된 것이다. 따라서 나이를 떠나 평소 꾸준한 혈관 건강에 신경 쓰며 뇌졸중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경동맥 혈관벽 두께, 심뇌혈관질환 건강 지표**
요즘 해외 학자들은 뇌졸중 양안으로 경동맥 혈관벽 두께를 주목하고 있다. 경동맥은 신소와 영양분을 담은 피가 뇌로 흐르는 주요 통로다. 경동맥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혈액이 뇌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경동맥 혈관벽 두께가 뇌졸중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심뇌혈관질환은 뇌졸중·고혈압·협심증·부정맥 등 심장·동맥과 직결된 대부분 질환을 포함한다.

미국 심장협회는 2000년부터 미국인 경동맥 혈관벽 두께를 측정할 결과를 근거로 심뇌혈관질환 조기에 진단 치료를 제정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혈관벽 두께를 심뇌혈관 질환의 건강 지표로 활용한다. 최근 SCD급 저분 심장혈관치료제(Cardiovascular Therapeutics)에 심인 건강관리 병원 연구도 경동맥 혈관벽 두께가 심뇌혈관질환

혈관벽 두께 1mm 넘으면 뇌졸중 위험 경중 간단한 초음파로 경동맥 확인할 수 있어

프랑스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 SOD 다량 함유... 혈관성 질환 완화 효과

위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 표준 값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35세 이상 한국 성인의 경동맥 혈관벽 두께는 0.6~0.7mm다.

미국뇌졸중학회지에 따르면 경동맥 혈관벽 두께가 1mm 이상일 경우 뇌졸중 위험이 남성은 3.6배, 여성은 5.5배 증가한다. 경동맥 혈관벽 두께가 0.1mm씩 증가할 때마다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15%, 뇌졸중 위험은 18% 커진다. 경동맥이 70% 이상 막힌 사람에게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1년 이내 20%, 5년 이내 50%다. 경동맥 혈관벽 두께는 간단 단한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 항산화 효과 높다**
경동맥 혈관벽은 노화로 탄력을 잃어 주머니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두꺼워진다. 과일 열매인 칸탈로프를 섭취하는 원인이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저밀도 지질단백질(LDL)과 중성지방이 피와 섞이면 딱딱한 물질인 플라크(혈관)가 돼 혈관벽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두께를 더한다.

경동맥 혈관벽에는 각종 항산화제가 도출될 수 있다. 체내에서 각종 세포를 공격해 노화나 암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막아 혈관벽 탄력을 높일 수 있다. 비타민C가 대표적 인 항산화제다.

최근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가장 주목받는 물질은 'SOD(SuperOxide Dismutase)'이다. 그간 SOD에 관한 논문만 5천편 이상 발표됐다. 이 중 SCD급 저분을 포함해 50건 이상 임상 연구에서 SOD가 뇌졸중·뇌졸중·고혈압·동맥경화·뇌경색·급성 심근경색·관상동맥 질환·치매·협심증·우울증 등 혈관성 질환에 효과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프랑스·타이·일본 등 여러 국가 산하 기관 연구는 SOD가 저산소로부터 피부 보호, DNA 손상 방지, 암양 억제, 당뇨와 신장질환 예방, 심근세포 사멸 예방, 면역력 강화, 시력 개선,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SOD를 다량 함유한 대표 식품은 칸탈로프 멜론이다. 특히 프랑스 아비뇽 지역에서 특유의 유기농 재배법으로 생산해 특허를 취득한 칸탈로프

멜론은 SOD 함량이 많다.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과 일반 칸탈로프 멜론을 같은 무게로 12일간 햇빛과 밤에 정도를 비교했더니 12일 후 일반 칸탈로프 멜론은 색이 바랜 반면 칸탈로프 멜론은 그대로였다라는 연구가 있다.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이 지닌 SOD 함량이 일반 칸탈로프 멜론보다 7배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으로 섭취한 SOD는 위장에서 위산과 만나 대부분 파괴된다. 그냥 먹어서 항산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프랑스 연구진은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에서 추출한 SOD를 10배 고도로 처리해 위산을 잘 견디고 장(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노벨 생리학의학상(2008)을 받은 프랑스의 펠릭스 졸타니에 박사는 임상시험을 통해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의 항산화효과와 면역 강화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이 감방지드르기로 인한 알레르기 치료에 효과적 보인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은 국내 대사용주금 환자를 위해 개발된 물질로, 많이 먹을수록 더 효과적이며, 안전성이 높고, 오메가 지방을 비롯한 안전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김성영 기자



항산화 물질 SOD 함유 '혈관관리를 위한 비타민', 경동맥 혈관벽 두께 감소에 도움... 국내 최초 식약처 인정

씨스팜의 '혈관관리를 위한 비타민'은 경동맥 혈관벽 두께를 줄이는 효과가 국내 최초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등 간접적 방법이 아니라, 혈관벽 두께 자체를 줄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돕는다.

프랑스 아비뇽 지역에서 유기농 재배에 프랑스 특허받은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이 주원료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SOD(SuperOxide Dismutase)를 10배 단백으로 코팅해 위산을 거처(腸)에 무사히 흡수될 수 있도록 했다.

씨스팜 관계자는 "시중에 많은 항산화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혈관관리를 위한 비타민 두께를 직접 줄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했다. 한편 씨스팜은 오는 23일까지 2018 설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2)850-2525

東亞日報와 朝鮮日報는 건강을 주제로 간 기능 개선제와 혈관벽 두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東亞日報 기사는 간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UDCA'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그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성분을 함유한 대표적인 간 기능 개선제가 '대웅제약의 우루사'라며 우루사는 임상시험을 통해 UDCA 효능을 실제적으로 밝혔다고 선전했다. 제품 사진도 실었다.

朝鮮日報 기사는 뇌졸중을 막으려면 경동맥 혈관벽 두께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각종 항산화제가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주목받는 물질인 'SOD'를 칸탈로프 멜론에서 추출해 위산에 견디고 장까지 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 받은 이 추출물로 만든 '혈관관리를 위한 비타민' 제품을 소개했다. 해당 제품 사진도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송 호	정송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인은 어떠한 단체, 종교, 종파 등 사회세력과 그리고 기업 등 어떠한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금전적 유혹이나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제3조 「보도준칙」 ⑦(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